기름값 얼마나 올랐나

- 김 주 헌 -
〈대한석유협회 업무팀 과장〉

기름값이 많이 올랐다고 한다. 신문에서도, 방송에서도 그리고 주위에서 한결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호 석유협회보에 어느 주부가 쓴 글에서는 주유소에서 『가득 채워주세요』란 말이 겁날 정도로 가격이 올랐다고 한다. 종전에 만원짜리 두 장이면 충분하던 것이 이제는 석장을 내고서도 거스름돈이 거의 없을 정도란다.

사실 휘발유값은 지난해 ℓ 당 6백24원에서 지금은 8백48원으로 무려 36%나 껑충 뛰었다. 따라서 이와같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법도 하다.

그리고 석유협회는 지난 '94년 2월 유가연동제 실시부터 가격을 조정하여 발표하다보니 비난의 화살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유가연동제하에서 기름값은 원가인 국제원유가격과 환율에 의해 결정되어진다. 국제 원유가격과 환율의 변동에 따라 국내 기름값이 오를 수도, 내릴 수도 있는 것이다.

지난 해는 국제 원유가격이 연초대비 28%, 환율이 9% 상승하다 보니 국내 기름값 인상은 불가피한 결과였던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정유업계들이 가격인상을 주도하고 상당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의심조차하고 있다. 현대인들의 삶이란 기름값 외에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생활비가 너무 많다. 소득이 올랐다고 하지만, 아파트 관리비, 주택마련 대출이자, 자동차 유지비, 교육비 등 옛날 단독주택에서 애들 마음껏 뛰어놀게 키우던 시절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돈이 이제는 1차적으로 나가고 그 남은 돈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데, 그 속에서 물가가 오른다는 소리가 들리니 그 자체가 스트레스인 것이다. 이런 가운데 생활필수품이 되어버린 자동차의 연료비가 지난 해에 비해 무려 36%올랐으니 소비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올 법도 하다. 따라서 지난해 기름값 상승때마다 받았던 소비자들의 고충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표 - 1〉 물가 감안한 유종별 소비자가격

(단위 : 원/ℓ)

	소비자 물가지수	휘발유		등유		경유	
		가격	물가감안	가격	물가감안	가격	물가감안
1981	66.2	697.7	1053.9	257.7	389.3	250.3	378.0
1982	70.9	740.0	1043.7	292.0	411.8	286.0	403.4
1983	73.3	667.9	911.2	292.3	398.7	283.3	386.5
1984	75.0	660.0	880.0	291.0	388.0	281.0	374.7
1985	76.8	660.0	859.4	291.0	378.9	281.0	365.9
1986	78.9	587.5	744.7	249.2	315.8	241.4	306.0
1987	81.3	558.4	686.8	234.7	288.7	228.1	280.6
1988	87.1	445.6	511.6	194.7	223.5	190.3	218.4
1989	92.1	379.8	412.3	186.0	202.0	182.0	197.6
1990	**100.0**	**383.5**	**383.5**	**191.3**	**191.3**	**182.0**	**182.0**
1991	109.3	477.0	436.4	226.9	207.6	182.0	166.5
1992	116.1	546.0	470.3	235.7	203.0	198.6	171.1
1993	121.7	610.0	501.2	254.0	208.7	214.0	175.8
1994	129.3	611.1	472.6	252.3	195.1	227.4	175.9
1995	135.1	598.0	442.6	261.6	193.6	239.4	177.2
1996	141.8	675.6	476.4	314.7	221.9	300.7	212.1
1997. 2	145.0	848.0	584.8	396.7	273.6	383.2	264.3

그러나 기름값을 과거 16년간의 변동과정을 통해 살펴보면 그동안 우리가 저렴한 가격에 얼마나 많은 혜택을 누렸는지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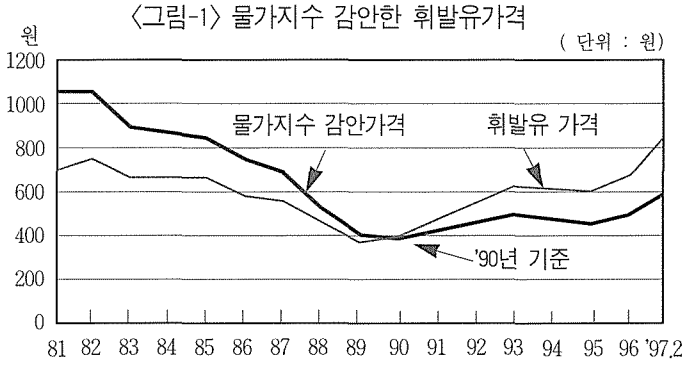
'81년도 휘발유가격은 ℓ 당 6백98원이었고 2월 현재 8백48원으로 지난 16년간 21.5% 상승에 불과했다. 당시 영화 관람료가 1편에 2천5백원이던 것이 요즘엔 6천원으로 140% 올랐고 정부의 물가관리대상의 단골손님으로 오르내리던 자장면값도 당시는 1천원을 밑돌던 것이 이제는 2천5백원 정도로 150% 오른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리고 휘발유값이 많이 내린 적도 있다. '87년 이후 불어닥친 3저시대로 '89년에는 ℓ 당 3백80원을 밑돈 시절도 있었다. 그 전후로 약 4년동안 가격혜택을 마음껏 누린 소비자들에게는 『그까짓 휘발유 값이야 얼마나 된다고』하는 휘발유에 대한 평가기준이 마음 깊숙히 자리잡기 시작했고, 그런 심리가 지금까지 팽배해 왔었다. 그러던 중 최근과 같은 기름값 상승에 상당히 당혹해 하고 있다. 휘발유값이 바닥이었을 때 웬만한 가정에서 대부분 자동차를 구입했으나, 이제는 의외로 휘발유값이 많이 드니 부담이 커진 것이다.

그러면 지난 16년간 상승과 하락을 거듭하면서 형성된 현재가격을 두고 과연 기름값이 비싸다고 이야기할

〈그림-1〉 물가지수 감안한 휘발유가격

(단위 : 원)



〈표 - 2〉 휘발유의 가격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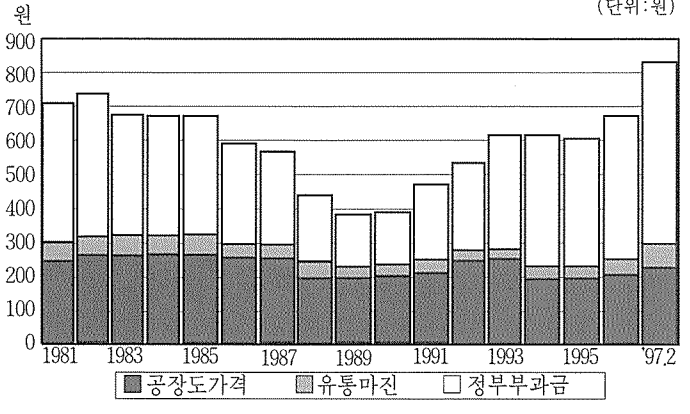
(단위 : 원/ℓ)

	소비자 가격	공장도		정부부과금		유통마진	
		가격	비중	가격	비중	가격	비중
1981	697.7	260.1	37.3%	397.9	57.0%	39.7	5.7%
1982	740.0	276.7	37.4%	423.3	57.2%	40.0	5.4%
1983	667.9	281.3	42.1%	346.6	51.9%	40.0	6.0%
1984	660.0	281.8	42.7%	338.2	51.2%	40.0	6.1%
1985	660.0	281.8	42.7%	338.2	51.2%	40.0	6.1%
1986	587.5	248.1	42.2%	297.7	50.7%	41.8	7.1%
1987	558.4	239.1	42.8%	268.7	48.1%	50.6	9.1%
1988	445.6	188.4	42.3%	198.2	44.5%	59.1	13.3%
1989	379.8	170.5	44.9%	159.7	42.1%	49.6	13.1%
1990	**383.5**	**177.2**	**46.2%**	**158.9**	**41.4%**	**47.4**	**12.4%**
1991	477.0	210.0	44.0%	219.6	46.0%	47.4	9.9%
1992	546.0	217.7	39.9%	278.5	51.0%	49.8	9.1%
1993	610.0	240.4	39.4%	317.5	52.1%	52.1	8.5%
1994	611.1	182.1	29.8%	374.4	61.3%	54.6	8.9%
1995	598.0	174.9	29.3%	368.4	61.6%	54.7	9.1%
1996	675.6	182.9	27.1%	436.3	64.6%	56.4	8.3%
1997. 2	848.0	231.4	27.3%	552.9	65.2%	63.7	7.5%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지난 16년간의 기름값을 연간 평균했을 때 휘발유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ℓ 당 6백98원('81) → 8백48원('97.2)으로 '81년대비 21.5%(연평균 1.22%) 상승하였고, 등유는 ℓ 당 2백58원('81년) → 3백97원('97.2)으로 '81년대비 53.9%(연평균 2.73%), 경유는 ℓ 당 2백50원('81년) → 3백83원('97.2)으로 '81년대비 53.2%(연평균 2.70%) 상승 하였다.

〈그림-2〉 휘발유 소비자가격 구조



여기서 타제품가격과 비교하여 피부로 느끼는 체감가격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전체 소비자 물가지수를 감안해 보았다. '90년 소비자 물가지수를 100으로 했을 때 '81년은 66.2, '97년 2월은 145.0이 된다.

기름가격에서 이 지수를 나누면 〈표-1〉에서와 같이 물가를 감안한 가격이 되며 이 경우 휘발유가격은 1천54원('81년) → 5백85원('97.2)으로 오히려 연평균 3.61%하락하였고, 등유는 3백89원('81년) → 2백74원('97.2)으로 연평균 2.17%, 경유는 3백78원('81) → 2백64원('97.2)으로 연평균 2.22% 하락한 셈이다. 전체물가에 비해 기름값은 오히려 내렸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림-1 참조)

또한 휘발유의 가격구조를 찬찬히 뜯어보면

대부분 세금으로 흡수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격 인상의 원인은 바로 세금과 같은 정부부과금인 것이다. (표-2 참조)

'97년. 2월 현재 전국 평균한 휘발유가격을 보자. 정유업체의 세전공장도가격은 ℓ 당 2백 31원, 그러나 공장에서 출고된 휘발유가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 여러가지 세금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휘발유 1 ℓ에 붙는 교통세, 교육세, 부가세 등 각종 세금은 무려 5백53원이다. 공장도가격에 세금을 합치면 7백 84원으로 가격이 껑충 뛴다. 여기에다 대리점과 주유소의 유통마진이 64원 정도 보태져 최종소비자가격은 8백48원이 되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휘발유 1 ℓ를 사면서 소비자가격의 65.2%를 세금으로 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지난 16년간에 걸쳐 최고수준이다. '81년 57.0%에서 가격이 가장 낮았던 '89년은 42.1%이었으며, 그 이후 줄곧 비중이 높아졌다.

그러나 공장도가격은 소비자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1년 37.3%에서 '90년까지 46.2%로 증가하다가 최근에는 27% 수준으로 최저를 기록하고 있으며, 가격도 '81년 ℓ당 2백60원에서 '97년 2월에는 2백31원으로 오히려 내렸다. 즉, 소비자가격, 공장도가격, 정부부과금의 상관관계에 의하여 소비자가격의 상승요인은 정부부과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2 참조)

결론적으로 기름값은 최근에 큰 폭으로 올랐으나, 지난 16년간 타물가와 비교해서는 오히려 내렸으며, 최근의 가격인상도 기름을 판매하는 정유회사가 아닌 정부의 세금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국제 유가는 상승하기만 하던 상황에서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다. 연초에 배럴당 20달러를 상회하던 두바이 원유가 3월 들어서는 17달러대 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이같은 기조가 향후 계속 유지된다면 국내 기름값도 안정될 것이다. 그동안 원가상승에도 국민을 의식해서 기름값을 제대로 못올렸던 정유업계는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여지며 소비자들의 부담도 덜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 세금을 조정하여 기름값을 비싸게 매겨서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그 효과는 의문시 된다. 국제 유가하락의 효과가 소비자나 업계에게 제대로 돌아가기를 기대해 본다.

석유소비자 신고센터 안내

우리협회에서는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하여 석유거래와 관련된 애로 및 불편사항 등을 상담·처리하기 위한 "석유소비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사오니 소비자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 신고센터 전화 : (02)733-6960, FAX : (02)732-2290

- 사단법인 대한석유협회 -